

1. 초청공연

11월 9일 (5시) 여수시민회관

연극 돌아온다 (90분)

극작 선욱현 / 연출 정범철



<공연내용>

"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경기도 외곽, 시골마을에 작은 한 식당이 있다. 이름하여 ‘돌아온다’ 식당. 그 식당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손글씨 액자가 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식당에 몰려온다.

그 마을에 거주하는 단골들도 있다. 육쟁이 할머니,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선생, 집 나간 필리핀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그들은 날마다 그 식당에 와 막걸리를 마시고 간다. 그것은 진한 그리움이며 기다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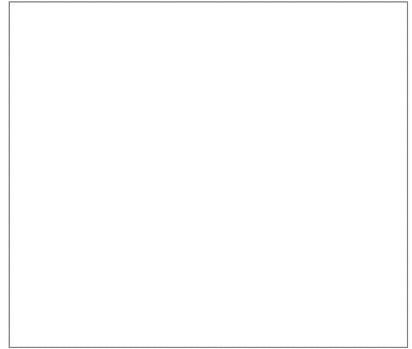
그 식당에 인근 야산 절에 새로운 주지스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2. 경연작 - 강제결혼

11월 10일 (19시) 진남문예회관

연극 강제결혼 (80분)

생이아름다운 극단 / 극작 박수경 / 연출 김정한



<공연내용>

결혼 할까? 말까? 인생 코미디! 흥미진진한 플롯!
사채업자 스가나렐 영감은 젊고 아름다운 도리메에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우리의 도리메에느에게는 계약이 존재하는데... 젊은 리카스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한 몫 쥐기위해 스가나렐과의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이러한 속셈을 알게된 스가나렐은 이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 먹는다.
도리메에느의 아버지인 알깡또오르에게 찾아가 결혼을 취소하고자하지만 말처럼 쉽지않고, 그 때 도리메에느 오빠가 스가나렐에게 결투 제안을 하게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스가나렐~
과연 결투에 이겨서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행복과 명쾌한 웃음을 찾아 강제결혼 속으로 GOGO!

3 .경연작 - 그날, 기억

11월 12일 (19시) 여수시민회관

연극 **그날, 기억** (90분)

극단 역사 / 작,연출 송민길



<공연내용>

순천에 있는 한마을. 충수와 준석이는 친구다. 충수는 지주의 아들이고, 준석이는 소작농에 아들이다. 준석이 아버지는 일본군에게 심한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충수 아버지는 준석을 아들 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서로 친형제처럼 자랐다. 충수 아버지는 준석을 대학에 보낼 생각을 하였으나, 준석이는 군인이 되겠다고 한다. 충수 아버지는 준석이가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응원해 준다. 준석이가 군대를 가고 얼마 후 한 중위가 찾아 오는데...

4. 경연작 - 우리 말 글

11월 13일 (19시) 진남문예회관

연극 **우리말 글**(75분)

문화예술공방 바람꽃 / 극작 원광연 / 연출 한종신



<공연내용>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이 한글과 영어를 동일시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다. 이를본 광대들은 찬성과와 반대파로 나뉜다.

그러면서 모두들 한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한극의 수난의 역사들을 들여다본다.

한글을 반대하는 신하들에 맞서는 세종. 한글로 된 책을 전부 태우라는 연산군.

일본에 의해서 한글을 쓰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훈민정음 해례본의 입수와 해례본의 신문 연재 등등
우리의 한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5. 경연작 - 나르는 원더우먼

11월 14일 (19시) 여수시민회관

연극 나르는 원더우먼(80분)

극단 크레이션 / 극작 이선경 / 연출 석애영



<공연내용>

1970 전라남도 급격한 경제적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혼란한 그때, 가난을 이기고자 돈을 벌고 싶은 희숙은 꿈을 이루고자 시내의 버스회사로 취직한다. 당시 ‘산업 역군을 실어 나르는 진정한 여차장들’이라는 사장의 말에 여차장들은 더욱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 속에서 첫사랑도 찾아오고 여차장들은 가족처럼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게 된다.

각자의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여차장일은 회사 내 성폭행, 폭력, 윤리, 여성 인권들을 빼앗긴다. 그럼에도 부모님과 자신의 꿈, 가족을 위해 눈물을 참으며 일을 이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여차장 중 한명인 경자는 늘 부당함을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는데...

6. 경연작 - 예외와 관습

11월 15일 (19시) 진남문예회관

연극 **예외와 관습** (80분)

연극집단 반 / 극작, 연출 김지은



<공연내용>

“석유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우르가로 떠나는 원정대”
_상인 카알 랑그만, 길잡이(길 안내자), 쿨리(짐꾼)

반드시 석유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상인 카알 랑그만, 그의 여행길을 돕는 길잡이, 그리고 짐꾼 쿨리. 세 사람은 상인의 재촉 아래 긴 여행을 떠난다. 상인은 자신보다 쿨리를 더욱 챙기는 길잡이의 모습에 불안을 느끼고 급기야 길잡이를 해고하게 된다. 이제 그들 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야히 사막과 각자의 관습만이 존재한다. 물이 점점 떨어지자 상인은 계속 불안해하고 급기야 물을 주려고 다가오는 짐꾼을 죽인다.

이에 쿨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열리고, 상인은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며 재판을 받게 된다. 과연 재판의 결과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7.경연작 - 밀정리스트

11월 16일 (19시) 여수시민회관

연극 **밀정리스트** (80분)

극발전소301 / 극작 정범철 / 연출 김성진



<공연내용>

1929년, 경성의 은신처. 의열단원 최태규와 신화진, 김명순이 초조해하며 김충옥을 기다리고 있다. 상해에서 거사에 투척할 폭탄을 가져오기로 했던 김충옥이 소식이 없던 탓이었다. 걱정도 잠시, 김충옥이 폭탄을 유통할 줄 아는 정설진이 권총 4정과 탄알 800발, 폭탄 4개와 모금명단을 가지고 도착한다. 그들의 목적은 종로경찰서에 있는 사이트 총독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치밀하게 계획한 그들의 거사는 예상과 다르게 실패로 돌아가고, 계획간에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급기야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팀의 리더인 충옥은 고심에 빠진다. 밀정을 색출해야만 이후 거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심하던 충옥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흘려 내부에 있는 밀정을 색출하기로 하는데...

8.

페스티벌

11월 11일 (15시) 여수문화홀

연극 **여보세요** (80분)

극단 각진녀석들 / 극작,연출 유현진



<공연내용>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소중한 무언가를 맡기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머무는 곳, 지하 전당포.
그곳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누군가가 방문한다.

“여보세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소중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를 만나 ‘우리’ 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11월 13일 (15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연극 두드리다 (60분)

극단 빨 / 극작 민선이 / 연출 김재영



<공연내용>

조선시대에 불합리한 신분 제도에 맞짱 뜬 홍길동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두드리다의 하지숙이 있다. 프로그램 전문가 하지만은 메타버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두드리다라는 회사를 창업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메타버스 속 남자친구를 찾아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하지숙과 의뢰인 편의정은 사라진 남자친구 고시원의 메타버스 속 흔적을 찾아다닌다. 알면 알수록 찾기 힘든 이 남자, 고시원! 그는 누구인가?

메타버스 속에서 누구나 다 아는 금수저 고시원의 모습에 편의정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떠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메타버스 속 삶과 달리 고시원의 현실은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세상의 갑질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편의정에게 메타버스가 현실을 잊게 해주는 공간이었다면, 흙수저 고시원에겐 딱 막힌 세상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꿈을 잠시 접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하지만은 이들과 만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과연 의정은 남자친구 고시원을 찾고 모두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될까...?

□ 포스터 이미지



<공연예매 링크_구글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82Ef1zQWIyNxopwo18ItTD11QZoa5OzXxlAicTNZVYfEbQ/viewform>

<공연예매 QR코드>

